



# Special Thanks to The KWC Participants

지난 2022년 6월, 제 18회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가 2주간의 컴피티션을 거쳐 막을 내렸다. 이 챌린지에 와인을 보낸 술한 와인 생산자 가운데 이번 KWC에 처음으로 와인을 보내 이 행사를 빛나게 해준 몇몇 와이너리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 코너를 오픈했다. 프랑스 론에 생산 근거를 두고 질 좋은 와인을 내고 있는 Maison Orcia와 보졸레 Morgon 산지의 와인을 내는 Château Grange Cochard이다. 마침 이 두 와이너리는 같은 주인이 경영하고 있어 함께 실는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 Maison Orcia

메종 오르시아는 2016년 장 필립 망쎬(Jean Philippe Manchés)에 의해 설립되었다. 와인의 생산을 론 지방 가운데 남부 론 지방의 '코뜨 뒤 론', '샤또 뇌프 뒤 빠쁘', '바게이라스' 등지의 AOC 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코뜨 뒤 론 AOC는 남부 론 지역 산지 가운데 거의 80%가 이 계층 AOC에 속한다. 어느 면에서는 남부 론 지역 거의 모든 산지를 커버하는 셈이다.

샤토뇌프 뒤 빠쁘와 바게이라스의 두 AOC는 코뜨 뒤 론 산지 가운데 질 좋은 와인이 나는 크뤼(Cru)급 산지로서 최상급의 와인이 나는 곳이다. 이번 KWC에서 바게이라스 산지의 와인이 Gold를 거머쥐기도 했다. 참고로 Maison Orcia의 와인은 아직 미수입 상태여서 좋은 수입 파트너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Châteauneuf du Pape BIO 2020

Châteauneuf du Pape 2020

Côtes du Rhone Rouge BIO 2020

Côtes du Rhone Blanc BIO 2020

Vacqueyras 2019



### Château Grange Cochard

이 샤토의 오너 역시 앞서 본 Manchés 가문의 샤토이다. 이 샤토는 보졸레의 크뤼급 산지인 모르공(Morgon) 와인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르공이란 보졸레 와인 산지 가운데 Cru급 AOC 10개 가운데 하나이다. 약 1,100ha의 이 산지는 꼬뜨 드 부루이(Côtes de Brouilly AOC)와 더불어 보졸레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인다. 토양은 주로 편암질이며 와인은 살구향에 부드러운 맛을 보인다. 숙성기간이 장기적이어서 훌륭한 질의 와인이 난다. KWC에서 Morgon Côte du Py의 와인이 Silver 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이 샤토는 이 산지의 특성에 기초하여 가급적 자연에 순응한 레드 와인을 빚기 위해 오가닉 와인으로 전환 중에 있다. 포도밭 면적은 Morgon AOC로 8,5ha를 보인다. 기본 철학은 이곳의 떼루아에 맞는 와인을 빚는다고 한다.



Les Charmes AOC Morgon  
2020

Côte du Py AOC Morgon 2020

Le Plateau AOC Morgon 2020